

손님 하나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손님의 자리를  
비워드립니다**



2021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Best Private Bank in Korea)



2021 글로벌 최우수 혁신 PB은행  
(Most Innovative Private Bank in the World)



바이올린 박진수

Deqing Wen

# REMEMBERING DVOŘÁK

**드보르자크  
서거 120주년**

드보르자크 |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바단조, 작품번호 11  
Dvořák | Romance for Violin and Orchestra  
in f minor, Op.11

드칭 웨 | 교향곡 제 1번 “드보르자크를 기리며” 세계초연 위촉곡  
Deqing Wen | Symphony No.1  
“Paraphrasing Dvořák” World Premiere

드보르자크 | 교향곡 제 9번 마단조,  
작품번호 95 “신세계로부터”  
Dvořák | Symphony No.9 in e minor,  
Op.95 “From the New World”

**09.26**  
THU 7:30PM

LOTTE  
CONCERT HALL

지휘 함신의

고맙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심포니 S.O.N.G 이사진  
BOARD OF DIRECTORS

이사장  
문형주

부이사장  
안정근

이사  
송백규  
이경혜  
이주현  
김희련

감사  
김일규

낮은 소리  
LOW VOICES

권상준  
김태구  
백수인  
오승훈  
윤정웅  
장명식

2023 - 2024시즌 연 회원 후원자 명단

마에스트로 Circle

노루그룹  
하나은행

마스터즈 Circle

(주)EG

말러 Circle

한영재  
(유)세봉  
(주)에프에스티  
(주)티에스이

브람스 Circle

(주)디에스케이  
(주)GFS  
(주)골프존  
어스빌리지

브루크너 Circle

김석수  
신승일  
전동규  
(주)다진

슈베르트 Circle

김창석  
이경혜  
윤정웅  
(주)면사랑  
(주)세아제강  
(주)제이씨케미칼  
(주)풍산  
영앤진세무법인

베토벤 Circle

김윤자  
최영애  
장원기  
한태준  
홍종관  
(주)동효

쇼팽 Circle

안정근  
송백규  
최승식  
(주)KNW

모차르트 Circle

서석호  
신영만  
양서윤  
양세이  
원장희  
윤석애  
전홍구  
한수향  
한정숙  
엔피코리아  
법무법인산경

하이든 Circle

고윤영  
권영성  
권용관  
김성렬  
김종혁  
김호진  
박명우  
봉옥  
신갑순  
윤현숙  
이근혁  
이미영  
이병권  
장민경  
장윤정  
전인평  
조백일  
최승갑  
최인규  
한문성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

심포니 S.O.N.G

‘심포니 S.O.N.G(심포니송)’은 지휘자 함신익이 창단한 민간 주도 오케스트라입니다.  
지휘자 함신익은 KBS교향악단, 대전시향 및 미국 유수의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거쳐  
유럽, 남미, 아시아 등 다양한 오케스트라에서도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2014년 8월, 지휘자 함신익은 후원자들과 음악가들과 더불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Symphony Orchestra for the Next Generation>의 첫 자를 탄 <함신익과 심포니 S.O.N.G> 창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창단 이후 현재까지 심포니송은 뛰어난 연주력, 창의적인 프로그램, 광범위한 사회공헌 연주 등  
차세대 오케스트라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발전하며 각계각층의 폭넓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무한 책임이라는 함신익의 신념과 음악을 사랑하는 후원자들의 애정 어린 응원이 이뤄낸 결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MISSION

- 대한민국 오케스트라의 통상적인 운영 체계를 뛰어넘어, 민간기업과 개인들이 후원자 인 동시에 주인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 진정한 예술정신을 발휘하여 클래식 음악이 주는 고귀한 메시지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한다.
- 음악을 통해 따뜻한 기적을 이루고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나눔의 오케스트라로 자리 하여 지역사회를 활기치게 한다.

VISION

- 뛰어난 기량을 가진 음악가들이 입단하여 프로연주자로서 최대 5년을 활동하면서 다음 세대에 필요한 예술가로 성장하게 한다.
- 국내 최고의 홀에서 진행되는 고품격 ‘마스터즈 시리즈’를 통한 최상의 연주로 관객의 만족을 추구한다.
- 유의미한 해외 연주를 통해 국제적 트렌드를 리딩하는 선도적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VALUE

- 오케스트라의 효율적 운영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 한국 메세나 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에서 노루홀딩스와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였다.
- 서울시의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 드보르자크 서거 120주년



**Dvořák**  
(1841 ~ 1904)



## Romance for Violin and Orchestra in f minor, Op.11

드보르자크 :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바단조, 작품번호 11

【 박진수, Violin 】

**Deqing Wen**  
(1958 ~ )



## Symphony No.1 “Paraphrasing Dvořák” (World Premiere)

드칭웬 : 교향곡 제 1번 “드보르자크를 기리며” (세계초연)

함신익과 심포니 송 위촉곡

### Intermission

**Dvořák**



## Symphony No.9 in e minor, Op.95 “From the New World”

드보르자크 : 교향곡 제 9번 마단조, 작품번호 95 “신세계로부터”

- I. Adagio - Allegro molto ..... 느리게 - 매우 빠르게
- II. Largo ..... 아주 느리게
- III. Scherzo. Molto vivace ..... 스케르초. 매우 생기있게
- IV. Allegro con fuoco ..... 정열을 가지고 빠르게



# 심포니송의 프로들



<b>예술감독</b>	함신익				<b>오보에</b>	김소정	박수진
<b>바이올린</b>	송지원	박진형	강은실	문수빈	<b>클라리넷</b>	김민찬	김나윤
	최윤경	강기은	김민하	김지연	<b>바순</b>	김윤지	장준우
	김희영	박윤정	박지윤	박혜림	<b>호른</b>	조종현	주혜준 김준호 신동훈
	선유란	오하은	옥영미	이예나	<b>트럼펫</b>	이진규	이혜진
	이예원	전지은	정예린	최주은	<b>트럼본</b>	이윤호	김재원 신경원
<b>비올라</b>	서예슬	강희원	노소희	안예림	<b>튜바</b>	김종엽	
	윤소은	장윤정			<b>팀파니</b>	남기랑	
<b>첼로</b>	이길재	김욱	이다빈	이한길	<b>퍼커션</b>	김솔민	손혁진
	이혜인	정다인	정혜술	최영	<b>하프</b>	추민경	
<b>더블베이스</b>	고부현	강선롤	김현미	윤영진	<b>크리에이티브팀</b>	신현숙	고부현 구현정 김소정
	이동규	이요한				남기랑	유소정 이수민 이창훈
<b>플루트</b>	김소희	변미술					

\*명단은 수석/부수석 외에는 가나다순 정렬입니다.



# 함 — 신익

함신익과 심포니송을 지켜본 사람들은 지난 10년을 ‘孤軍奮鬪(고군분투)’라고 표현한다. 고군분투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힘에 벅찬 일을 잘해 나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지휘자 함신익은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를 표방하며 매분 매초를 벅차게 10년을 살아냈기 때문이다.

### 사명 의식이 깃든 지휘자 함신익

함신익의 고군분투는 실상은 예술을 접하는 유니크한 태도와 시선에 닿아 있다. 사춘기 시절, 인상 깊게 관찰한 선교사들의 행적이나 실향민인 부모로부터 받은 선한 영향력은 오늘의 함신익을 형성하는 데 소금 같은 역할을 한다. 가난하지만 신실했던 소년 시절의 경험은 그가 성장해 가며 생성된 보석 같은 사명 의식이 된다. 함신익은 한국에서의 학업과 군 복무 후, 미국 라이스대학교와 이스트만 음악학교에서 지휘, 피아노, 성악, 이론 그리고 음악사를 배웠다. 그의 열정은 미국의 토양에서 발휘하게 되는데 재학시절 직접 구성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였고, 철학과 지휘 경험을 극대화하며

프로 지휘자로서 뿔어 나갈 수 있는 견고한 발판을 구축했다. 심지어 아스펜의 여름 음악캠프에서도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등 거침없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쏟아부었다. 30대 초반까지 함신익은 미국에서 학업에 열중하였고 이후 세계 지휘콩쿨에 입상하며 1992년부터 프로 지휘자로 데뷔했다. 미국의 그린베이 심포니, 예블린 필하모닉, 타스카루사 심포니, 밀부룩 오케스트라 등 중·소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며 ‘오케스트라 부흥사’라는 별명을 얻어가며 주목받는 지휘자로 성장했다. 37세부터는 예일대 지휘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3년간 후학양성에 몰두했다. 그가 키워

낸 제자들은 유럽, 미국, 아시아의 중요한 오케스트라의 지휘단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의 지도를 받은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세계 메이저 오케스트라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 세계가 함께 즐기는 새로운 음악의 길 제시

지휘자 함신익은 대전시립교향악단(2001-2006)과 KBS교향악단(2010-2012)의 예술감독, 음악감독으로 한국 오케스트라의 중흥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세계 곳곳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그의 능력을 증명해 냈다. 뉴욕 카네기홀, 링컨센터, UN 본부, 암스테르담 콘세르트헤보우, 보스턴 심포니홀, 필라델피아 김멜센터, 스페인 빌바오, 말라가 심포니홀, 시애틀 베나로야홀, 볼티모어 마이어호프홀, 워싱턴DC 케네디센터, 독일 캄니츠 주립극장, 독일 북서 지방의 콘서트홀들,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 브장송 오페라하우스, 아비뇽 오페라하우스, 헝가리 부다페스트 프란츠리스트홀, 체코 프라하 드보르작 루돌피움, 스메타나홀, 베이징 국립대극장, 상하이 오페라하우스, 도쿄 오페라시티홀, 오사카 심포니홀, 폴란드 바르샤바 심포니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볼쇼이홀, 태국 방콕 마이돈홀, 몽골 울란바토르 국립극장 등과 그 밖의 많은 도시에서 순회연주를 하였거나 그곳의 오케스트라들과 협연하였다.

최근 행보는 브라질, 멕시코, 그리고 우루과이 등 남미의 오페라와 오케스트라로 이어지고 있다. 그의 전형적인 열정과 섬세한 지휘가 남미 연주자와 청중들에게 어필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2006년부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청두, 항저우, 구이양, 칭다오 등 중국 대도시의 오케스트라로부터 초청을 받고 있다. 최근 2024년 5월 10일, 쓰촨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쓰촨성 심포니홀 개관 공연을 선보였다. 쓰촨성 음악가 협회 명예회장이자 유명 작곡가인 아오창쿤 교수는 “함신익 지휘자가 쓰촨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지휘하며 장엄한 추진력과 강한 예술적 매력으로 청중을 놀라게 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973년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문화예술기관으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활용해 각종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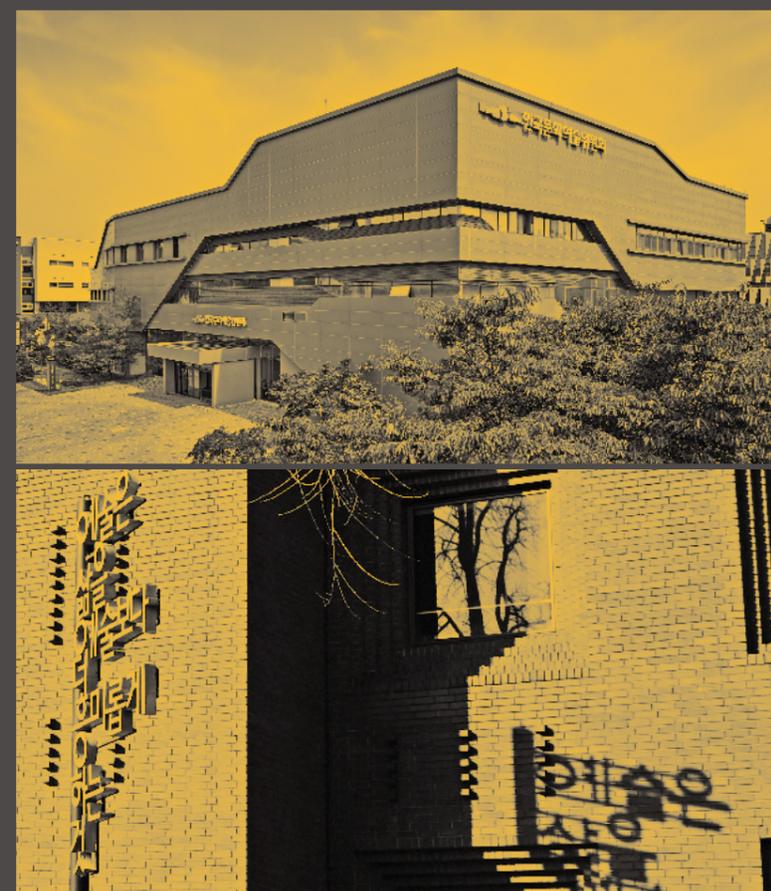
**예술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세상의  
모든 문화예술을 위한  
크고 작은 움직임으로  
당신과 예술을 잇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기초예술 분야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융복합 형태 예술의 진흥을 위해 장르별 특성에 맞춘 예술가의 창작활동 지원부터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지원합니다.

또한, 기획부터 기술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 활성화의 저변이 되는 전문 인력양성, 문화예술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자료 수집과 연구, 문화예술을 위한 후원제도 시스템 마련, 극장 및 미술관, 페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등 보유시설 기반의 모두를 위한 예술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이 세상을 바꿀 힘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예술가가 마음껏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arko.or.kr





중국계 스위스 작곡가인 드칭 웬은 중국, 스위스, 프랑스에서 작곡을 공부하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방문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상하이 음악원 작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스위스 작곡가협회(Société Suisse pour les Droits des Auteurs d'Oeuvres)의 회원이자 China-ASEAN 음악가 연합의 부회장, 서울 심포니 S.O.N.G의 상주 작곡가로 활동 중이다.

드칭 웬은 중국 전통 예술과 철학에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음악 작품에 많은 영감을 얻으면서도 한 길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의 작품은 기교가 뛰어나고, 감정이 풍부하며, 미묘한 긴장감이 절묘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담한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다양한 음악 장르를 아우른다. 그의 작품들은 매우 독특하고 독창적이어서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다.

드칭 웬은 중국, 스위스, 프랑스, 덴마크, 미국, 독일, 이스라엘, 태국, 한국에서 자신의 작곡을 주제로 한 콘서트와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한 적이 있다. 그의 작품은 스위스 뮤지컬 에디션, 독일 베렌라이터-베를라그, 상하이 음악원 음악 출판사, 베이징 인민 음악 출판사에서 출판되었으며 그의 앨범은 스트라디바리우스 레코드(이탈리아), 그램몬트 포트레이트 컨템포러리 스위스, 나코스 레코드, 텔로스 뮤직 레코드, 상하이 음악 출판사에서 발매되었다.

## Deqing Wen

Deqing Wen, a Chinese Swiss composer, studied composition in China, Switzerland, France and as a visiting scholar at Columbia University (US). He is currently a professor of Composition at Shanghai Conservatory of Music. He is also a member of the Société Suisse pour les Droits des Auteurs d'Oeuvres and vice-chairman of the China-ASEAN musicians union, resident composer of Symphony S.O.N.G of Seoul. Deqing Wen is deeply influenced by

Chinese traditional arts and philosophy, which have provided him so many inspirations for his musical works yet without leaving any track. His works are considered brilliant in techniques, full of emotions, exquisite with subtle tensions, and bold in blazing new trails but readily understood, drawing on different musical genres. They are so unique and original that they have won him world acclaim. Deqing Wen has been honored with concerts portrait, as well as master

classes, dedicated to his compositions in China, Switzerland, France, Denmark, the United States, Germany, Israel, Thailand and Korea. His works are published by Swiss Musical Edition, Bärenreiter-Verlag (Germany), Shanghai Conservatory of Music Press, Beijing People's Music Publishing House. His albums are released by Stradivarius Records (Italy), Grammont Portrait Contemporary SWISS, Naxos Records, Telos Music Records, Shanghai Music Publishing House.

## 바이올리니스트 박진수



### 심포니 송의 첫인상

심포니 송과는 지난 6월 “해성음악회”를 통해 처음으로 함께 호흡해 봤는데,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편안한 분위기와 자유로운 리허설 과정이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 가장 애정하는 작곡가와 그 이유

저는 항상 공부하는 작품의 작곡가를 애정하는 편입니다. 현재 드보르작의 작품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드보르작을 가장 애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의 작품들에는 우리나라의 정서와 비슷한 요소들이 녹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아름다운 선율들이 가슴 깊숙이 와닿지 않나 싶습니다.

### 작년에 발매한 데뷔앨범 ‘희상’ 작업에 대한 회고

아무래도 처음으로 작업한 음반이다 보니 작업 과정 중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억에도 많이 남는 거 같아요. 음악가로서 저의 음악을 세상에 남기게 되어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번 심포니송과의 협연에 대한 기대와 준비

지난번 마스터즈 시리즈 공연에 관객으로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심포니 송은 다양한 현대곡과 초연곡들을 자주 선보여서 항상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공연장을 찾게 됩니다. 저 역시 연주자로서 고전음악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대음악들을 관객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포니 송의 공연에서 좋은 자극을 받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선선한 9월에 아름다운 드보르작의 음악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 바이올리니스트 박진수

감각적인 테크닉과 섬세한 음악성으로 주목받은 바이올리니스트 박진수는 미국 맨해튼 음악대학 예비학교(Manhattan School of Music, Pre-college Division)를 졸업하였고, 벨기에와 스웨덴에서의 음악 공부를 거쳐 독일 쾰른 국립음대(Hochschule für Musik und Tanz Köln)에서 학사,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다양한 연주 활동으로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낸 그는 이탈리아 에우테르페 국제 음악콩쿠르 1위, 벨기에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Triomphe de l'Art 1위, 독일 쾰른 실내악 콩쿠르 파르텟부분 1위, 그리고 독일 베를린 Streichwerk International String Competition, 뉴욕 국제음악콩쿠르,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음악콩쿠르 등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서 연이어 수상하였다. 2019년 한국에서의 첫 독주회를 시작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이후, 그는 더 하우스콘서트 ‘클로즈업시리즈’, 오르페오 오드 포트 라이브, 예술의전당 아티스트 라운지 및 인천시립교향악

단,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충남교향악단 등 다양한 무대에서 실내악 연주와 솔리스트를 넘나드는 연주자로 호평받고 있다. Patinka Kopec, Mihaela Martin, Tatiana Samouil, Henryk Kolwaski, 이경선을 사사한 그는 작년 소니 클래식과 함께 발매한 슈베르트 전곡 앨범을 통해 슈베르트라는 한 작곡가에 보다 깊이 몰두하여 깊이 있고 진지한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Antonín Dvořák

Romance for Violin and Orchestra in F minor, Op. 11, (B. 39)

드보르작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바단조, 작품번호 11



안토닌 드보르작(Antonín Leopold Dvořák, 1841~1904). 그는 베드르지흐 스메타나(Bedřich Smetana, 1824~1884)에 의하여 확립된 체코 민족주의 음악을 낭만주의 음악 안에서 효과적으로 녹여내어 대중화 시킨 음악가로 평가받는다. 1841년 9월 6일 보헤미아의 작은 마을 넬라호제베스(Nelahozeves)에서 마을 여관을 운영하는 도살업자(butcher)의 일곱 자녀 중 하나로 태어났는데 6세 때부터 바이올린에 특출한 재능을 보였으며 지역 악단과 교회에서 아마추어 연주자로 활동하였다. 16세가 되던 해에 프라하 오르간 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음악가의 길을 걷게 되는데 훌륭한 비올라 연주자이기도 하였던 그는 오르간학교 졸업 후 체코인을 위한 국민극장인 보헤미안 가설극단에 입단하여 10여 년간 연주자로서 일하게 된다. 당시 오페라단 상임지휘자였던 스메타나(Bedřich Smetana, 1824~1884)는 드보르작의 창의적인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작곡가로서 성공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으며 이러한 인연으로 드보르작은 스메타나의 국민주의 음악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재정적 여건이 좋지 않았던 드보르작은 1874년 오스트리아 예술 장학금 쿤쿠르에 도전하게 되고 당시 심사위원으로 그의 재능을 알아보았던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는 자신의 출판사인 짐로크(Simrock Music Publishin Firm)에 드보르작의 작품을 강력히 추천하는 동시에 평생에 걸쳐 그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는 데 큰 힘을 쏟게 된다.

바이올린 솔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바단조 작품은 무명시절 작품인 현악 4중주 5번 바단조(1873년)의 2악장을 개작(改作)한 것으로 그는 세 도막 형식의 원곡에 두 개의 주제를 추가하여 소나타 형식으로 확대하였다. 이 작품의 작곡 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음악학자 데이비드 베버리지(David R. Beveridge, 1951~)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1873년 현악 4중주와 같은 해에 많은 부분 작곡(형식 및 오케스트레이션)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877년 체코 임시 극장 관현악단의 리더였던 요제프 마르쿠스(Josef Markus, 1831~1893)는 프라하의 조핀 궁(Žofín Palace)에서 열리게 될 기금 모금 연주회를 위한 작품을 의뢰하였고 이에 그는 종결주제와 발전부를 추가하여 그해 12월 발표하게 된다. 곡은 고전 형식과 낭만주의 화성 위 해 아름답고 우려한 보헤미안/슬라브 멜로디가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있다. 작품이 재구성될 1877년은 그의 삶에서 큰 비극이 있었던 시기이다. 그는 그 해 세 자녀를 동시에 잃게 되는데, 한 명은 출산 전, 한 명은 사고로,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천연두로 사망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이 작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작품에서 불현듯 느껴지는 애상(哀喪) 내지는 비애(悲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Andante con moto

2관 편성으로 팀파니와 트럼펫에 제외된 악기 구성이다.



[제 1주제]

첫 주제는 현악사중주 5번 2악장의 주요 주제이다. 오케스트라의 소개 이후 솔로 바이올린이 먼저 연주하는 데 높은 음역에서 아름답게 반복한 뒤 주제 동기가 복잡하게 변주, 확대된다. 두 번째 주제는 장조와 단조 화성을 교차하면서 사랑의 벽차오르는 감정을 상, 하행의 단순한 형태로 담백하게 표현한다.



[제 2주제]

다소 짧은 발전부는 오케스트라의 드라마틱한 변주 위에 솔로의 화려한 연주가 극적이다. 재현부는 한층 더 온화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짧은 코다는 바장조로 평화를 이야기한다.

Antonín Dvořák

Romance for Violin and Orchestra in F minor, Op. 11, (B. 39)

The Romance in F minor, Op. 11 (B. 39), is a single-movement composition for violin and orchestra by Antonín Dvořák (1841~1904), published in 1879. It was commissioned by Josef Markus, the leader of the Provisional Theatre Orchestra in Prague, for their annual concert at Žofín Palace. The piece premiered on December 9, 1877, conducted by Adolf Čech. Dvořák adapted the work from the Andante con moto quasi allegretto movement of his String Quartet No. 5 in F minor, composed in 1873, which remained unperformed and unpublished during his lifetime. He also created a piano-accompanied version dedicated to violinist František Ondříček, which was unpublished in his lifetime. The orchestral version and an arrangement for violin and piano (B. 38) by Dvořák's friend Josef Zúbatý were published by Simrock in 1879.

The composition, marked Andante con moto, is in F minor and follows a sonata form. It starts with a graceful melody from the String Quartet No. 5, transitions to a similar contrasting key theme, then introduces a more restless theme, and includes an episode of strident chords from the orchestra. The original calm mood eventually returns, and the work concludes in F major.

Deqing Wen

Symphony No.1 “Paraphrasing Dvořák” (World Premiere)

드칭웬

교향곡 제 1번 “드보르작을 기리며” (세계초연) 합신악과 심포니 송 위촉곡

안토닌 드보르작 서거 1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합신악과 심포니 송의 위촉에 의해 작곡된 이 작품은 드보르작의 “신세계로부터” 교향곡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현대적이고 개성적인 스타일을 반영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변형되었다. 이 작품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따뜻한 증언으로, 특히 첨예하게 분열된 오늘날의 세상에 울림을 주는 교향곡의 정신적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원래의 4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지 않고 하나의 악장 안에 4개의 부분으로 압축되었다.

Instrumentation (악기편성)	
2 Flutes (Flute II also Piccolo)	4 Horns
2 Oboes (Oboe II also English Horn)	2 Trumpets in C
2 Clarinets in Bb (Clarinet II also Bass Clarinet in bb)	2 Trombones
2 Bassoons	1 Bass Trombone
percussion: side drum, vibraphone, 3 suspended cymbales (+bow), 1 large t-tam, tubular bells	
Timpanis	
Strings	

Antonín Dvořák

Symphony No. 9 in E minor, “From the New World” Op. 95, (B. 178)

드보르작

교향곡 제 9번, 마단조, “신세계로부터” 작품번호 95

드보르작은 1891년에 프라하 음악원 교수로 임명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뉴욕 국립음악원 원장직을 제안 받게 되고 이를 받아들여 미국으로 건너가 3년 동안 뉴욕에 머물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흑인 영가와 인디언 음악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1893년 겨울, 드보르작은 뉴욕 필하모닉 교향악단으로부터 교향곡 작곡을 위촉을 받게 되는데, 이 요청에 의해 탄생한 곡이 교향곡 제 9번 “신세계로부터”이다. 이 곡은 훗날 그의 여러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중적인 곡으로 평가받게 된다. 1969년 닐 암스트롱(Neil Armstrong, 1930~2012)이 인류 최초로 달에 갈 때 가져간 곡이며, 2008년 뉴욕 필하모닉 평양 특별 공연 때 로린 마젤(Lorin Maazel, 1930~2014)이 북한 주민들에게 선사한 곡 역시 이 곡이다. 드보르작은 이 작품을 통해 신대륙 미국의 에너지와 생동감을 전하는 동시에 아름다운 전원(田園)의 체코 고향을 그려낸다.

1악장 Adagio – Allegro molto

드보르작이 유독 기차를 좋아했던 탓인지 1악장의 서주부는 육중한 증기 기관차(steam loco-motive)의 엔진이 그 머나먼 여정을 떠나기 위해 큰 굉음과 함께 서서히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준다.



To commemorate the 120th anniversary of Antonín Dvořák's death, this composition is inspired by Dvořák's Symphony from the New World, but these materials have been radically transformed to reflect a modern and individualized style. The work is condensed into four sections within a single movement, as opposed to the original four movements, aiming to reveal the spiritual essence of the symphony, which serves as a warm testament to the universal values of humanity, particularly resonant in today's sharply divided world.

Antonín Dvořák

Symphony No. 9 in E minor, “From the New World” Op. 95, (B. 178)

The Symphony No. 9 in E minor, “From the New World”, Op. 95, B. 178, popularly known as the New World Symphony, was composed by Antonín Dvořák in 1893 while he was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Conservatory of Music of America from 1892 to 1895. It premiered in New York City on 16 December 1893. It is one of the most popular of all symphonies. In older literature and recordings,



[1악장 서주부 주제와 기관차의 주제]

기차의 경적 소리 같은 호른의 팡파르를 지나 음악이 본격적으로 속도감을 가지고 진행될 때 호른과 트럼본은 멋진 멜로디를 연주하는데, 이것이 제 1주제이며 이는 '칙칙폭폭' 굉장한 속도로 힘차게 미 대륙을 횡단하는 거대한 기관차 내지는 이로 대표되는 미국 신대륙의 역동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1악장 제 1주제]

목관에 의한 두 번째 주제는 제 1주제의 후반부 동기를 확장하여 만든 것으로 제 1주제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다소 섬세하고 여린 다이내믹으로 표현되어 있다.



[1악장 제 2주제]

정신없이 질주하며 대륙을 횡단하는 가운데 음악은 친숙한 민요풍의 소절을 거치며 서서히 가라앉아 이윽고 따뜻한 그리움의 정서가 가득한 목가풍(牧歌風)의 종결 주제 선율이 플루트에 의해 소개된다.



[1악장 제서부 종결 주제]

혹자는 이 유명한 선율이 흑인영가 'Swing low, sweet chariot'의 도입부와 흡사하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드보르작이 이 영가에서 착안하여 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영가가 그리는 향수의 이미지는 이 종결 주제 선율이 그리는 정서와 일맥상통한다. 각 주제는 소나타 형식에 따라 발전된 후 뒤풀이되면서 아주 열정적이고 힘찬 코다로 접어드는데, 거침없이 목적지를 향해 내달리는 기관차처럼 제 1주제가 다시 한 번 우렁차게 연주되면서 마무리된다.

## 2악장 Largo

곡은 금관악기의 아름답고 서정적인 코랄로 시작된다. 이 금관 코랄의 화성 진행이 참 흥미로운데 처음 네 마디 동안 화성의 움직임이 그것이 논리적으로 진행 가능한 가장 먼 곳으로 향해 움직이면서 애뜻하고 아련하면서 서도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 멀리 멀리 돌아 본래 도달해야 할 코드로 종착되는 이 화성 진행의 과정이 마치 먼 여행을 떠났다가 고생과 시련 끝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기나긴 여정 같아 보이기도 한다.



[2악장 서주부 코랄 진행]

this symphony was – as for its first publication – numbered as Symphony No. 5. Astronaut Neil Armstrong took a tape recording of the New World Symphony along during the Apollo 11 mission, the first Moon landing, in 1969. The symphony was completed in the building that now houses the Bily Clocks Museum in Spillville, Iowa.

The composition is a product of professional mastery. The unity of form and content is flawless, and the four-movement framework is constructed with unerring architectural proficiency. The exceptional and compelling nature of the work lies in its remarkable lyricism and concise thematic treatment, striking rhythms, purity of expression, elemental temperament and the equilibrium of all these qualities together. A characteristic feature of the composition is the frequent reminiscence of themes from previous movements at crucial points in each subsequent movement, a principle which gives the symphony its homogeneous expression. Dvorak had used this approach many times in the past, but never with such consistency and deliberation.

The first movement begins with a brief, slow introduction, which lays out an essential melodic shape, important through the movement. Soon, after a spiky accent from the strings, the main theme is heard again, but clearly now in the horns. After a while the other main idea, a rather dark little pastoral "village dance" is introduced by oboes and flute. The last idea is an optimistic

곧 이어 등장하는 유명한 잉글리쉬 호른의 선율은 산들바람에 불어오는 포근한 고향의 정취와 평안함같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준다.



[2악장 제 1주제]

이 멜로디는 흑인영가나 인디언 민속음악에서 온 것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드보르작이 인디언 5음 음계 위에 순수하게 창작해 낸 것이다. 이는 드보르작의 제자인 피셔(William Arms Fisher, 1861-1948)가 훗날 이 선율을 가지고 '꿈 속의 고향'(Going Home)이라는 흑인 영가를 쓰는데, 그 곡이 너무 유명해지는 바람에 후대에 작곡 순서를 혼동하여 생긴 오해이기도 하다. 이 선율이 조용히 호른에 의해 아쉽게 끝이 나면 뒤이어 가슴시리도록 애타게 부르짖는 목관의 선율이 나온다.



[2악장 제 2주제]

무엇을 그리도 찾고 갈망하는 것인지, 처절해 보이기도 하고 슬퍼 보이기도 하는 이 장면은 현악기가 다시 그 선율을 이어 받아 더욱 신중히 그리고 더욱 애달프게 노래한다. 슬픔 후에 뒤따르는 희망처럼 음악은 1악장의 회상으로 이어지며 밝은 빛을 내다가 역순의 구조로 잉글리쉬 호른의 선율이 반복된 뒤, 금관의 합창에 의하여 깊은 생각을 품으며 막을 내린다.

## 3악장 Scherzo, Molto vivace

이 악장은 미국의 인디언 영웅 히아와타(Hiawatha)를 기리는 오페라 중 인디언 축제의 댄스 장면을 염두에 두고 작곡되었다. 실제로 드보르작이 그러한 오페라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가 이 악장에서 인디언 춤곡의 리듬적인 요소를 차용했으리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체코 민속 음악을 표방(標榜)하지만 직접 인용된 부분은 없다. 전반부에서 싱코페이션이 주로 쓰였으며 캐논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3악장 스케르초 주제]

멜로디는 뒤뚱거리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데 점차 볼륨이 커지면서 반복된다. 이때 저음 파트와 호른이 사인 행하며 싱코페이션 리듬으로 함께 엇갈려 멋진 장면을 연출한다. 중반부에서 슬라브 풍 트리오 주제는 앞서 인디언 민속 리듬 풍의 스케르초 주제와 대조를 이룬다.



[3악장 트리오 주제]

곡의 후반부에 이르러 1악장의 주제가 다시 밝게 회상되며 곡은 다음 악장을 준비한다.

tune, first heard in the low register of the solo flute. With all the themes introduced, a relatively short development of them ensues; all of the ideas easily recognized. And, as at the beginning, the horns start the trip back home with the main theme. After a harmonic surprise, the movement ends with the same dynamic mood of the beginning.

A few dark, low chords in the brass and woodwinds introduce the famous English horn solo. The middle section, in the minor mode, seems to be a gentle, funereal march, supported after a little while by pizzicato basses. Softer and softer, the mood is sustained until a sudden interruption from dancing woodwinds brings in a brighter frame of mind, sounding almost like rustic bagpipes skirling. At this stage, Dvořák, in a characteristic move, brings back two important ideas, easily remembered from the first movement; one played by the trombones, the other by the horns and violins. These he combines with the English horn tune, now in the trumpets. The solo English horn from the beginning quickly returns, and after a wistful contribution from a solo violin and cello, the gloomy chords that opened the movement bring us to the end.

The third movement scherzo is a Czech folk dance, with the added treat of two trios—rather than the conventional single one in the middle as contrast. They serve as a lyrical halt to the hammering freneticism of this careening Slavic folk choreography. After the dynamic opening, the more

4악장 Allegro con fuoco



[4악장 서주부 주제]

짧은 서주부에서 다시 한번 증기 기관차의 거대한 엔진이 현악 파트에 의해 그 엄청난 에너지를 뽐낸다. 영화 음악 작곡가 존 윌리엄스(John Towner Williams, 1932~)는 스티븐 스피버그(Steven Allan Spielberg, 1946~) 감독의 영화 죠스(Jaws, 1975)에서 식인 상어의 등장 음악 동기로 이 서주부 주제를 차용하였다. 곧 이어 트럼펫과 호른의 금빛 찬란한 팡파르가 제 1주제를 능름하게 연주한다.



[4악장 제 1주제]

마치 작곡자가 이제 미국을 떠나 유럽 대륙의 초입에 도달한 뒤 체코를 향해 두 주 간의 기나긴 기차 여행을 시작하는 듯 또 다른 기관차를 묘사한 동기가 흥미롭다. 음악은 더욱 진지하며 사뭇 비장해 보이기까지 하다. 신나게 내달리며 유럽 대륙을 횡단하다가 음악은 어느덧 클라리넷의 서정적인 보헤미안 선율(제 2주제)에 도달한다.



[4악장 제 2주제]

2악장에서의 심각함과 달리 이 장면은 긍정적이며 희망적이다.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본인의 고향에 막 도착하여 내딛는 첫 발걸음이어서일까? 기분 좋은 미소를 품으며 곡은 다시 신나는 춤곡의 리듬과 함께 칙칙폭폭 달려 나간다. 1악장 주제가 회상되고 곡이 막바지에 이르면 트럼펫에 의해 선보였던 4악장의 멋진 제 1주제가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의 울림을 통하여 퍼져나가면서 끝을 맺는다. 기차가 출발하면 정거장이 서서히 멀어져 보이듯 마지막 코드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긴 여운을 남기며 천천히 사라진다.

곡의 부제와는 달리 우리는 이 곡을 듣고 나면 뉴욕 시내의 화려한 거리나 미 중부 지대의 끝없는 대 초원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아기자기하고 마냥 순수해 보이는 보헤미안의 정겨운 시골 풍경이 연상된다. 드보르작이 이 곡을 쓰던 1893년, 그는 가족과 함께 아이오와(Iowa) 주의 스피빌(Spillville)에서 여름을 보낸다. 그곳은 보헤미안 출신 이민자들이 주를 이루어 세운 정착촌이었으며 특히 드보르작의 친척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하였다. 비록 고향을 가진 못했지만 스피빌에서의 여름은 드보르작에게 고향에 대한 추억과 애타는 그리움을 확인시켜 주기에 충분했으리라 본다. 결국 이 교향곡의 전체 메시지는 기관차와 인디언 춤곡으로 대표되는 신대륙 그 자체에 대한 묘사라기보다는 그 신세계로부터 고향 체코를 그리워하는 작곡가의 마음과 상상 속에서 체코로 귀향하는 긴 여정을 시간 순서대로 이미지화한 것이다. 1부의 아름다운 로망스에서 시작된 사랑과 신세계 교향곡의 향수가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이 저녁. 심포니 송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추억의 여정이 되길 바란다.

글: 박희정 (지휘자/작곡가)

relaxed first trio echoes the English horn tune from the slow movement. After a brief return to the thundering opening the second trio provides a diversion in the guise of a lilting Ländler. Then, back to the hammering first section, ending with a quote of the familiar horn motif from the opening of the symphony.

The last movement starts ominously in a dark, march-like mood, with unison horns and trumpets pealing out the famous modal theme. After chewing on this a bit, the orchestra goes to the expected second theme. This pleasant contrasting material is heard first in the soothing solo clarinet, followed by others. What then ensues is a development of all of almost everything from all the movements; varied, combined, and worked through. Even without all of this truly admirable intellectual and musical discipline, the psychological buildup to the end is sheer joy to experience. Constantly changing moods, tempos, and dynamics inevitably lead us to the triumph at the end, as minor turns to major, sustained by fortissimo statements of our familiar melodies. Interspersed are the familiar ominous chords from the slow movement, now sounded out in powerful tones by all the winds. A final last reiteration of the main themes of the first and last movements takes us home. When all has been said, it really doesn't matter at all whether this magnificent work is from the "New World," or the world of Dvořák's beloved Bohemia based on Nostalgia.

RACHMANINOFF  
SPECIAL

낭만의 절정, 라흐마니노프

라흐마니노프 | 피아노 협주곡 제4번  
Rachmaninoff | Piano Concerto No. 4 in g minor

라흐마니노프 | 교향곡 제2번  
Rachmaninoff | Symphony No. 2 in e minor

10.21  
MON 7:30PM



피아노 유영웅



지휘 함신의

슈베르트와  
브람스

Schubert and Brahms

11.28  
THU 7:30PM



- 슈베르트  
교향곡 제4번 다단조, '비극적'
-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라단조
- 지휘 함신의, 피아노 박종해

송년음악회  
베토벤 합창교향곡 작곡  
200주년 기념 연주

200th Anniversary of  
the Composition of the 'Choral'  
Symphony

12.27  
FRI 7:30PM



- 베토벤  
교향곡 제9번 라단조, '합창'
- 지휘 함신의  
국립합창단(소프라노 오미선, 메조 소프라노 김선정, 테너 이명현, 베이스 정인호)



# 2025 SEASON TENTATIVE PROGRAM

<p><b>01. 10</b> 롯데콘서트홀</p> <p><b>신년음악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Beethoven</b> — Prometheus Overture</li> <li>• <b>Dvorak</b> — Cello Concerto, op.104, b minor</li> <li>• <b>Beethoven</b> — Symphony No.5, op.67, c minor</li> </ul>	Fri	<p><b>02. 22</b> 예술의 전당</p> <p><b>Mozart Flute Concerto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Ferruccio Busoni</b> — Berceuse Elegiaque (1907)</li> <li>• <b>Mozart</b> — Flute Concerto No.1, K. 313, G Major</li> <li>• <b>Mozart</b> — Flute Concerto No.2, K. 314, D Major</li> <li>• <b>Schubert</b> — Symphony No.6, 'Little', C Major</li> </ul>	Sat
<p><b>03. 13</b> 롯데콘서트홀</p> <p><b>Mahler 9</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Mahler</b> — Symphony No. 9, D Major</li> </ul>	Thur	<p><b>04. 24</b> 롯데콘서트홀</p> <p><b>Welcoming Spring</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Cindy Cox</b> — Dreaming a World Edge (2022)</li> <li>• <b>Elgar</b> — Cello Concerto, op. 85, e minor</li> <li>• <b>Schumann</b> — Symphony No.1 'Spring' op.38, B Flat Major</li> </ul>	Thur
<p><b>05. 15</b> 롯데콘서트홀</p> <p><b>Remembrance Ravel and Shostakovich</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Mozart</b> — Piano Concerto No.21, K.467, C Major</li> <li>• <b>Ravel</b> — Le Tombeau de Couperin</li> <li>• <b>Shostakovich</b> — Piano Concerto No.1, op.35</li> <li>• <b>Ginastera</b> — Variaciones Concertantes</li> </ul>	Thur	<p><b>06. 20</b> 롯데콘서트홀</p> <p><b>영웅들을 추모하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Barber</b> — Adagio for Strings</li> <li>• <b>Takemitsu</b> — Requiem</li> <li>• <b>Mozart</b> — Requiem, K.626</li> </ul> <p>김순영 소프라노, 김선정 알토, 이명현 테너, 정인호 베이스, 인천시립합창단</p>	Fri
<p><b>09. 14</b> 예술의 전당</p> <p><b>Beethoven &amp; Bruckner</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Beethoven</b> — Piano Concerto No.3, op 37, c minor</li> <li>• <b>Bruckner</b> — Symphony No. 1 (Vienna version 1891), c minor</li> </ul>	Sun	<p><b>10. 16</b> 롯데콘서트홀</p> <p><b>Sibelius Special</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Strauss Jr.</b> — Fledermaus Overture</li> <li>• <b>Sibelius</b> — Violin Concerto, op.47, d minor</li> <li>• <b>Sibelius</b> — Symphony No. 5, op.82, E Flat Major</li> </ul>	Thurs
<p><b>11. 22</b> 롯데콘서트홀</p> <p><b>Stephen Hough Plays Grieg and Stephen Hough</b></p> <p>스티븐 허프가 초연하는 스티븐 허프 피아노협주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Hough</b> — AGATA a Basque Fantasy for Orchestra</li> <li>• <b>Grieg</b> — Piano Concerto in a minor</li> <li>• <b>Hough</b> — Piano Concerto 세계초연</li> </ul>	Sat	<p><b>12. 18</b> 롯데콘서트홀</p> <p><b>송년음악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Corelli</b> — Concerto Grosso op.6, No.8, g minor (Christmas concerto)</li> <li>• <b>Bach</b> — Christmas Oratorio BWV 248, Part 1</li> <li>• <b>Beethoven</b> — Symphony No.9, op.125, d minor 'Choral'</li> </ul> <p>김순영(소프라노), 김선정(메조소프라노), 이명현(테너), 정인호(베이스), 인천시립합창단</p>	Thurs



## 심포니 S.O.N.G 법인 / 개인후원 안내



구분	연회비	예우 및 혜택	공통예우
마에스트로	3억원 이상	기업연주* 6회 제공 2024시즌패스 - R석 40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명단 게재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마스터즈	1억원 이상	기업연주* 2회 제공 2024시즌패스 - R석 30매 증정	-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 마에스트로 함신익 기업방문강연 - 마스터즈 시리즈 프로그램 북 전면광고 - 추가구매티켓 10%할인
말러	5000만원 이상	기업연주* 1회 제공 2024시즌패스 - R석 20매 증정	*기업연주: 심포니 S.O.N.G의 실내악 그룹이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연주
브람스	3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2회 제공 2024년 시즌패스 - R석 12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명단 게재
브루크너	2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1회 제공 2024년 시즌패스 - R석 8매 증정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 추가구매티켓 10%할인
슈베르트	1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1회 제공 2024년 시즌패스 - R석 4매 증정	* 하이든은 제외
베토벤	500만원 이상	2024년 시즌패스 - R석 2매 증정	
쇼팽	300만원 이상	2024년 시즌패스 - S석 2매 증정	
모차르트	100만원 이상	2024년 시즌패스 4회 - A석 2매 증정	
하이든	1만원 이상		

문의 심포니 S.O.N.G 경영지원팀 02)549-0046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4-73904  
(예금주: 심포니송)

후원회 수시 가입 가능

후원금액은 월 1만원부터 매월 분할 자동이체 납부가능  
후원금에 대한 개인 소득공제 및 법인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정기후원

(자동이체로 더 편리해진 후원)

심포니 송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2024 시즌 후원 회원 모집



목표회원: 100명

## 후원 회원에게 드리는 혜택

# 마스터즈 시리즈 티켓 할인 (10%)<sup>\*회한</sup>

# 매달 활동사항과 공연정보 제공

# 오픈 리허설 참관특혜

# 연 2회 살롱 콘서트 초청

# 예술감독과의 연례 대화



# 'Melodia' 법인 후원약정서

신 청 인	성 명	_____	생년월일	_____
	주 소	_____		
	Mobile	_____		
	E-mail	_____		
약 정 금 액	※ 월기부금액 / 매월 25일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_____ 원			
	<input type="checkbox"/> 500만원 <input type="checkbox"/> 100만원 <input type="checkbox"/> 30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1만원			
일 시 납	일시납 _____ 원	※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자 동 이 체 은 행 정보	은행명	_____	예금주명	_____
	계좌번호	_____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동의함

동의안함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거부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아래 란을 채워주십시오

개인

또는

법인

약정금액 \_\_\_\_\_

성 명 \_\_\_\_\_

연 락 처 \_\_\_\_\_

###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 ※ 신청방법 : 약정서 작성 후 하단의 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심포니 송 전화번호 : 02-549-0046 이메일 : management@symphonysong.com
- ※ 심포니 송 후원자는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후원해 주신 모든 금액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이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형 MOLDING

피부 SKIN

메디스파 MEDISPA

비만 OBESITY

두피 SCALP

항노화 ANTI-AGING

지방성형 A FATTY MOLDING

성의학클리닉 A SEX CLINIC

세포재생전문클리닉 CELL REGENERATION CLINIC

L  
A  
H  
Y  
E  
O  
N

나의 자신감,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Tel. 02.3445.1155 Fax. 02-3446-6885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3(도산대로 420) 청담스퀘어 5층

Beyond to the world  
FA&BIO  
Global No.1 Company  
DSK Group



-FA부분

이차전지 장비, 카메라모듈장비, AMR(Autonomous Mobile Robot), FPD용 Bonding System 및 In-line System, Linear System, Probe, Laser

-BIO부분

보툴리눔 독소제제 'PROTOXIN' 을 이용한 치료제, 해독제, 바이오베터 제조/생산/판매.



보툴리눔독소제제 PROTOXIN, 필러, 바이오베터



전문약품과 일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제조 · 판매



Diode Pumping Solid State Laser End Pumped Laser

# GLOBAL GOLF PLATFORM COMPANY GOLFZON NEWDIN GROUP

골프존뉴딘그룹은  
‘새로움과 즐거움, 유익함의 창출’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  
글로벌 골프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웃·사회와 함께 동행하며  
늘 새로운 골프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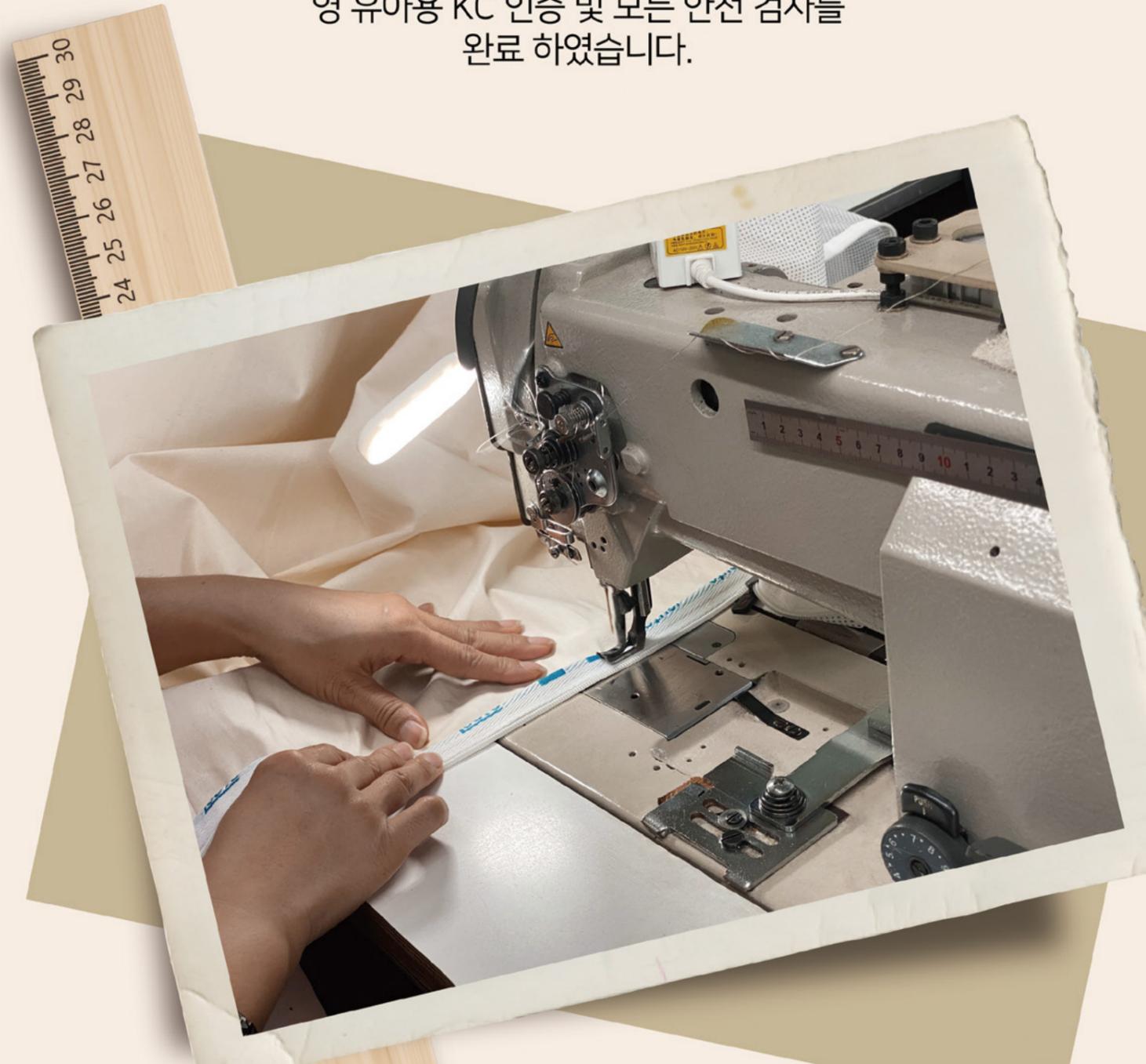
## GOLFZON NEWDIN GROUP



## 영 유아를 위한 수제작 토퍼 매트리스

3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가  
한 땀 한 땀 탄탄한 토퍼를 제작해 드립니다.  
(맞춤제작 가능)

영 유아용 KC 인증 및 모든 안전 검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 새로운 커피 습관 : 언더프레셔

언더프레셔의 다양한 홈카페 컬렉션 제품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스페셜티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MARKET Kurly** **coupang** **NAVER** 에서 언더프레셔를 검색하세요.



## OFFLINE SHOP



### <언더프레셔 삼성점>

맛있는 커피와 함께하는 특별한 휴식을 경험해보세요.  
www.underpressure.co.kr



### <찾아오시는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37, 1층(삼성동)  
☎ 82 (0)2 2019 8990

# Wizard7

최적의 사이트 구축·운영·관리를 제공합니다!

**풍부한 기능 탑재**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각종 OS·DB·브라우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기본기능

- HTML5(웹표준)
- 반응형웹 대응
- WYSIWYG 에디터
- 편집 모드/사용자 모드
- 강력한 권한 설정
- 파일관리
- 웹 접근성
- 다국어 지원
- 높은 보안
- 메뉴 관리
- 백업/복구
- 워크플로우

※기본 기능의 일부를 기재

**모듈** 필요한 기능을 선택하여 자유자재로 사이트 구축

- 게시판/뉴스
- 이미지 슬라이드
- 인물 소개
- 폼빌더
- 일정관리
- 규정관리
- 연혁 관리
- 회원정보 수정

※상기 외 모듈의 다양한 기능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 홈페이지를 위한 추가 솔루션

**S3 : eBMS**  
간행물 e북화 통합관리 솔루션

**S3 : HTML Converter**  
첨부파일 바로보기 솔루션